

2011봉축 칸타타 찬불소리 축 사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칸타타 찬불소리를 선보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칸타타 찬불소리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작(秀作)이자 능히 관중을 압도하고 대작(大作)임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진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이 땅에 전해진 후 오랜 세월을 민족과 함께 숨 쉬며 발전했습니다. 그 속에서 굳건한 민족정신의 근간을 형성해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무형의 민족 문화유산도 계승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선인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 결과 불교는 우리에게 당당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불교음악 또한 온전한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진감국사께서 범음을 전한 이래 절차탁마하며 발전시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함을 느끼고 즐기며, 다시 해석하여 현실에 맞는 옷을 입히고 훌륭히 성장시켜 후대에 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칸타타 찬불소리는 불교음악을 현대적 선율로 재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음악의 창작과 공연에 대한 노력이 면면히 이어질 때 우리의 문화유산은 그 생명력을 얻고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연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불교음악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